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고학생과 도시하층민

Forgotten People from the Memory of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Korea - SelfSupporting Students and Urban Working Class -

저자
(Authors) 오제연
Oh, Je Yeon

출처
(Source) [역사비평](#) , 2014.2, 136-172(39 pag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 2014.2, 136-172(39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비평사](#)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82216>

APA Style 오제연 (2014).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역사비평, 136-172

이용정보
(Accessed) 성신여자대학교
210.125.***.48
2020/04/07 13:2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고학생과 도시하층민

오제연

1. 4월혁명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4월혁명의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학생’, 특히 ‘대학생’이다. 4월혁명은 대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4월혁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 시위는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의 시위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3월 15일 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시도가 노골화되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는 시위가 산발적이지만 연이어 일어났는데, 당시 각 지역에서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도 대부분 고등학생이었다. 3월 15일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1차 마산항쟁이 일어나 경찰의 발포로 8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대학생은 여전히 침묵했다. 4월에 들어서 전북대와 해인대(현 경남대) 등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 및 시위가 있었지만, 그 규모나 수준은 미약했다.

대학생이 4월혁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부터였다. 이 시위 바로 다음 날인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여기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적극 참여했다가 경찰의 발포로 희생당했다. 흔히 ‘괴의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4월 19일의 대규모 시위 이후 대학생들은 드디어 4월혁명의 주인공 자리에 올랐다. 4월 25일 대학 교수단 시위를 거쳐 4월 26일 재개된 대규모 시위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4월혁명은 이내 곧 대학생의 혁명으로 규정되었다. 반면 4월혁명 시작부터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4월 19일에도 대학생 못지 않게 열심히 싸웠고 또 희생당했던 고등학생은 4월혁명의 역사 속에서 점차 잊혀졌다. 잊힌 것은 고등학생만이 아니다. 4월혁명에는 수많은 ‘도시하층민’들도 적극 참여했다.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4월혁명에 참여했는지는 다음 <표>에 나오는 4월혁명 당시 희생자 분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4월혁명 당시 전체 사망자 186명 중 대학생은 22명인 데 반해, 고등학생은 36명, 그리고 도시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표〉 4월혁명 희생자의 직업 분포

4월혁명 전체 사망자(186명)		1·2차 마산항쟁 사망자(13명) 및 소요죄 입건자(66명)		
직업	희생자수	직업	희생자수	소요죄 입건자
국민학생/중학생	19	중학생, 중졸	1	14
고등학생	36	고교생, 고졸	4	
대학생	22			
회사원 및 학원	10	회사원 및 상공업	1	12
하층노동자	61	하층노동자	1(구두땀이)	22
무직자	33	무직	6	18
미상	5	미상(중졸, 고졸)		
계	186	계	13	66

* 출전: 오유석, 『서울에서의 4월혁명』, 『4월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선인, 2000, 216쪽.

* 여기서 마산시위 당시 소요죄 입건자 중 ‘회사원 및 상공업’ 12명은 회사원 2명, 공업 4명, 상업 1명, 이발사 2명, 요리사 1명, 세탁업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층노동자’ 22명은 노동자 15명, 창녀 3명, 식모 1명, 행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층노동자(61명)와 무직자(33명)는 무려 94명이나 된다. 1·2차 마산항쟁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사망자 13명 중 중고등학생이 5명, 도시하층민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하층노동자+무직+미상)이 7명이며, 소요죄 입건자 66명 중에서는 그 수가 각각 14명과 40명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학생은 한 명도 없다.

사실 <표>에 나오는 통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도시하층민의 4월혁명 참여에 주목하는 연구 역시 일찍부터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에 나온 김성환의 논문이다.¹ 김성환은 이 논문에서 초기에 4월혁명을 주도했던 민주당 세력과 학생, 지식인은 독재정권이 일단 붕괴되자 주도체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각기 분산되어버린 반면,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 등 기층민중 세력은 정권붕괴라는 표층적 현상에서 향상된 삶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또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치열한 형태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나갔다고 보았다.² 특히 그중에서도 도시빈민은 일정한 계층으로서의 유대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생존 그 자체의 극한적 상황과 존재의 부동성 및 아노미 상태로 인해 4월혁명 과정에 가장 격렬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 통계자료 등에도 분명히 나타난다고 주장했다.³

김성환의 논문 이후 한상진, 정용욱, 이영환 등도 4월혁명 당시 투쟁을 격화시키고 한층 폭력적 형태로 만든 도시빈민 같은 기층민중과 그들이 주도한 ‘밤시위’에 주목했다.⁴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기층민중이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사회경제적 구조와 그 모순을 지적하는 데 머물러 구체적인 사례 정리와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4월혁명에 참여한 도시하층민에 주목하는 연구는 2010년 4월혁명 5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나온 이승원의 논문과, 국

문학 분야에서 나온 권명아, 김미란, 권보드래의 논문, 역사학계에서 나온 오제연과 이상록의 논문이다.⁵ 이중 이승원의 논문은 4월혁명에 참여한 하층노동자와 무직자 같은 하위주체의 참여형태를 분석하는 한편, 4월혁명의 결과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가 역설적으로 4월혁명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하위주체들을 드러내지도, 설명하지도, 제도적으로 승인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명아, 김미란, 권보드래의 논문은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하는 대학생을 비롯한 엘리트들이 4월혁명에서 분출한 도시하층민의 요구를 ‘혼란’으로 규정하여 이를 4월혁명에서 배제시키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대학생, 남성 중심의 기존 4월혁명 인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제연과 이상록의 논문은 4월혁명 당시 혹은 그 직후까지도 생각보다 많은 도시하층민의 시위나 정치적 요구가 있었으나, 이것들이 4월혁명의 수습 과정에서 엘리트들에 의해 배제되고 오히려 그들의 언어로 전유되었음을 보여줬다. 그 밖에도 4월혁명 5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중심의 기존 4월혁명 인식을 뛰어넘고자 각 지역에서 전개된 4월혁명에 대한 정리와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각 지역에서 전개된 도시하층민의 시위 사례가 다수 언급되었다.⁶

4월혁명 50주년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들 연구들은 4월혁명에서 도시하층민의 참여양상에 주목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구조의 분석이나 이론의 적용으로 주체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문학 분야에서는 몇 가지 단편적인 사례만을 가지고 이를 과잉 해석하여 엘리트 중심의 사고를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역사학 분야 역시 사료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다른 주제의 글에서 부분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각 지역의 4월혁명을 정리한 글들도 도시하

층민의 각종 시위 사례를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 없이 나열적으로 보여주는 정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4월혁명 당시 도시하층민의 시위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도시하층민과 비슷한 처지에 있으나 학생 신분으로 인해 그들과 일정하게 구별되는 고학생^{若學生} 시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 분석하면서 ‘아래로부터’ 4월혁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학생의 조직시위

1960년 3월 15일로 예정된 4대 정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2월 28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정치적으로 학생들을 간섭·이용하는 이승만 정권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후 3월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고등학생의 시위는 대체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으나, 그중 몇몇 시위는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대전상고 학생들이 3월 10일에 벌인 시위였다. 경찰과 상이군경회가 대전상고 학생 시위를 진압하려 하자 학생들은 돌을 던지며 저지선 돌파를 시도했다. 경찰의 폭력 진압과 학생들의 투석으로 양측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자유당 선전차가 학생들을 제지하려다 파손되기도 했다.⁷

3월 15일 선거를 하루 앞둔 3월 14일 밤에는 서울에서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약 1천 명의 고등학생들은 투표 개시를 불과 10여 시간 앞둔 14일 밤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전개했다. 이 시위는 전날부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에도 저녁 일찍부터 정사복 경관과 교원들이 거리마다 배치되어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신분증을 대

조해가며 귀가를 종용했다. 그러나 밤 8시부터 인사동 입구, 화신백화점 앞, 광화문 네거리, 서대문 로터리 등을 중심으로 삼시간에 모여든 고등학생들은 100명씩, 50명씩 떼를 지어 ‘빠라’를 뿌리고 ‘구호’를 외쳤으며, 개중에는 횃불을 들고 스크럼을 짜서 거리를 행진하는 이들도 있었다. 미리 배치되었던 경찰에 의해 학생 시위는 모이기 무섭게 곧 해산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마구 휘두르는 방망이에 맞아 피 흘리는 학생도 눈에 많이 띄었고 이에 맞서 학생들이 경찰차에 돌을 던지는 등, 이날 밤의 거리는 자못 살벌한 분위기였다.⁸ 이 날의 학생 시위로 경찰은 180여 명의 고교생을 연행했다.⁹

3월 14일 서울의 고등학생 밤시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이 대부분 중동, 대동, 군명, 강문 등 10여 개 야간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¹⁰ 한 학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데모’의 동기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일단 시위의 명분은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상식과 목전에 다가온 부정선거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였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며 진행된 1960년 3월 14일 밤의 ‘횃불시위’는 마치 2000년대 이후 ‘촛불시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당시 언론은 이날의 시위를 ‘즉흥적’이고 ‘산발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최근 홍영유가 관련자들을 만나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날 고등학생들은 ‘협심회(協心會)’라는 조직을 바탕으로 시위를 전개했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협심회’는 1960년 2월 12일 혹은 13일경에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고” 결성되었다. 처음에는 특별한 단체 이름이 없다가 1960년 3월 말경 ‘협심회’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¹¹ 이들은 주로 학도호국단 행사 관계로 자주 모임을 갖고 유대를

가졌던 각 고등학교 간부급 학생들이었다. 처음에는 서울 시내 약 10개 내의 학교가 호응했고 뒤에 그 수가 16개로 늘었다.¹² 그중 야간학교가 10개, 주간학교가 6개였는데, 중심은 야간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원래 2월부터 시위를 계획했다가 정보 유출로 결행하지 못했고, 3월 13일에도 시위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비로소 14일 시위를 성사시켰다.¹³

협심회 관련자들의 증언은 몇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다. 우선 그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 야간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일반적으로 야간학교 학생은 사회경제적 처지가 다른 학생에 비해 열악했다. 그들 대부분은 낮에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밤에 학교에 다녀야 했던 ‘고학생’이었다. 협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협심회’와 관련하여 검색되는 기사는, 4월혁명 직후 그들이 성금을 냈다는 기사와 장면 정권 당시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를 주제로 학생교양강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는 기사 단 2개뿐이다.¹⁴ 그런데 이들 기사에서 협심회의 정식 명칭은 모두 ‘대한고학생협심회총본부’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협심회는 야간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고학생 단체였던 것이다. 고등학교 고학생은, 4월혁명 당시 도시하층민을 대표했던 ‘직업소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낮기는 하지만 비슷한 사회경제적 처지에 있었다. 이들은 주로 신문팔이를 많이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피를 팔아 생계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4월혁명 전후 한국에는 많은 고학생이 있었다. 1958년 문교부 조사에 따르면 고학생 수는 중고교생 8,529명, 대학생 5,768명, 사범계 478명, 도합 14,775명이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실재상황을 과소하게 반영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1960년 현재 고학생은 약 30만 정도로 추산되었다. 특히 대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학생 중 약 30% 정도가 고학생이었다고 한다.¹⁵ 고학생이 많았던 만큼 1950년대에는 ‘전국고학생총연맹’, ‘고

학생동지회’, ‘제대고학생회’ 등 고학생 관련 단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협심회’는 당시 존재했던 여러 고학생 조직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학생은 정치적으로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앞서 협심회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반정부적 성향을 가졌다는 관련자들의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고학생의 가장 시급한 목표는 민주주의 회복이나 사회경제적 모순 해결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1950년대에 고학생 단체가 다수 조직되었던 것도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이익’의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당시 고학생 조직은 마치 노동조합과 유사했다. 그 결과 고학생 단체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전국고학생총연맹’처럼, 고학생 단체들은 한편으로는 ‘수업료 분납제’ 도입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지만,¹⁶ 다른 한편 3·15부정선거 과정에서 자유당의 이승만, 이기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정부와 밀착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¹⁷ 그런 의미에서 협심회는 예외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여타 고학생 조직들이 대학생 주도로 운영되었던 데 비해, 협심회는 고등학생만의 모임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정치적·경제적 이익의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3·15부정선거 이후 협심회 주도 학생들은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 때도 이에 합세했고, 이날 고려대 학생들이 정치깡패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후에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결집하여 또다시 밤시위를 벌였다. 4월 19일에는 협심회의 고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의 거의 모든 중고등학생, 대학

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4월 19일 서울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협심회가 주도하거나 이끌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협심회와 같은 고등학교 고학생들이 4월 19일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선 덕분에 4월혁명은 고양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4월혁명 직후 한 지식인은, 과거의 한국 학생운동이나 외국의 학생운동에 비하여 중산계급 이하의 학생들이 대부분 가담했다는 데 4월혁명의 특색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¹⁸

4월혁명 관련 기록을 보면 “까만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1960년 4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벌어진 시위 때 “까만 교복의 소년” 2명이 경찰의 총탄을 뚫고 소방차에 접근하여 소방차 휘발유 탱크를 열고 불을 붙여 소방차를 전소시킨 사건이다.¹⁹ 이처럼 4월혁명에서는 수많은 “까만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용맹하게 이승만 정권과 맞서 싸웠고, 때로는 뒤에서 살펴볼 도시하층민의 과격하고 파괴적인 시위에 적극 동참하기도 했다. 물론 4월혁명 관련 기록에 술하게 등장하는 “까만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을 모두 고학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학생들이 4월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사회경제적 처지가 도시하층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시위현장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급진적인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협심회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1950년대까지 국가의 학원 통제 수단이었던 학도호국단의 연계망을 이용하여 일종의 반정부 학생 조직을 만들고 시위를 전개했다는 사실이다. 즉 4월혁명 과정에서 분출한 저항이 사실은 이승만 정권의 지배와 통제의 의도하지 않은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4월혁명 당시 학생 시위, 특히 고등학생 시위에는 학도호국단 조직이 주로 이용되었고, 또 1950년대 학도호국단의 ‘관제 데모’ 경험이 큰 영향을 끼쳤다.

1950년대에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의한 학생 동원, 즉 ‘관계 데모’가 자주 일어났다. 그중 가장 길고 격렬하게 진행된 관계 데모는 1960년 4월혁명 직전인 1959년에 1년 내내 지속된 ‘재일교포 복송 반대시위’였다. 당시 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십만 명에 이르렀고, 여러 지역에서 각 학교 학도호국단 주도로 야간 봉화 시위까지 감행했다.²⁰ 이 경험은 앞서 언급한 1960년 3월 14일 시위 때 학생들이 ‘햇불’을 들고 나오는 데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 데모 때 학교 측은 학생들의 출석을 부르고 불참 시 결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학생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당시 학생들에게 시위는 익숙한 경험이었다.²¹ 4월혁명 당시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시위에 먼저 나설 수 있었던 것도,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관계 데모에 더 많이 동원되었다는 사실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4월혁명 직후 한 학자는 한국의 학생들이 “집권자의 이익을 위한 행렬에 언제나 동원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가지가지의 관계 데모에 동원된 경력이 많았”는데, “4월혁명은 바로 독재정권에 의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된 바를 그 데모에 의하여 성취”한 것으로, 여기에 이승만 정권의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²² 또한 당시 한국에서 성공회 신부로 활동하고 있던 한 외국인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 데모가 비상하게 잘 훈련된 것이었는데 이는 이 정권하에서 많은 관계 데모에 동원되고 거기서 얻은 여러 가지 질서 있는 데모 방법을 그대로 살린 것”이라는 인상기를 남겼다.²³ 실제로 4월혁명 당시 대부분 고등학생 시위는 학도호국단 조직을 그대로 이용했다.²⁴ 고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처지가 도시하층민과 비슷했고, 그래서 도시하층민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시위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학교에 소속된 학생

들이었기 때문에 협심회처럼 기존 학도호국단 조직과 연계망을 이용해 보다 쉽게 힘을 결집할 수 있었다. 정치적 의사 표현과 요구 관철을 위한 아래로부터 힘의 결집은, 반드시 새로운 발상과 방식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기존의 질서와 조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이다.

3. 도시하층민의 밤시위

1) 1·2차 마산항쟁

3월 14일 밤 서울에서 감행된 학생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3월 15일에 치러진 4대 정부통령 선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이에 마산의 민주당 당원들은 당일 곧바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낮에 시작된 마산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낮시위를 주도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행과 체포가 있는 후 오후 늦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저녁 7시 정도가 되자 민주당 마산 시당사 앞에는 다시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몇몇 청년들의 주도 아래 남성동파출소를 향해 진격했다. 수백 명의 군중들은 돌맹이 막대기 등 손에 잡히는 것만 있으면 닥치는 대로 파출소로 던졌다. 저녁 8시가 지날 무렵 파출소에서 사격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 1명이 쓰러졌다. 이에 시민들이 더욱 흥분하여 파출소로 밀어닥치자 경찰들은 옆 창문을 통해 황급히 피신해버렸다. 파출소를 완전히 장악한 시민들은 사무실 집기, 비품 등 가릴 것 없이 때려 부수고 공문서 서류 등을 찢고 팽개쳐버렸다.

시위대는 이후 남성동파출소에서 마산시청 쪽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대

로에는 벌써 1만 명을 헤아리는 인파가 몰렸다. 시위대를 주도하는 청년, 학생들은 불이 훤히 켜진 건물에다 대고 “불을 끄시오!” 하고 큰 소리로 경고했다. 경찰이 시위대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등회관제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바람에 온 시기는 암흑천지, 어둠의 도시로 변해버렸다.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시위대는 거침없이 행동했다. 특히 자유당 마산시당 사무소, 국민회, 서울신문 마산지사 등을 지날 때 몽둥이로 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돌팔매질로 건물을 파손시켰다.²⁵

밤의 익명성은 사회적인 약자가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3월 15일 밤시위는 학생보다 시민이 주도했다. 특히 도시하층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일례로 당시 마산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귀환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신포동 주민 중에 품팔이, 부두노동자, 구두닦이, ning마주이, 흥등가의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늘진 곳에서 군말 없이 숨죽이며 살아온 이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가려주는 어두운 밤에 그동안 쌓이고 쌓인 울분과 응어리진 한을 폭발시키려는 듯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²⁶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마산의 항쟁을 ‘폭도’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권력의 입장에서 바라본 모습일 뿐이었다. 소외된 도시하층민들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힘의 행사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⁷ 이들에게 밤은 자신의 언어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다. 권력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분출할 수 있는 밤은, 그래서 권력에게는 두려운 시간이었다. 실제로 마산에서 시위대가 타격한 시설들은 대부분 권력기관 혹은 권력과 밀착한 어용기관이었다. 특히 정권의 침병으로서 민중의 원성을 많이 받았던 경찰 시설이 대부분 공격당했다.

3월 15일의 밤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밤 9시 30분을 넘기면서 마산 시민들은 무학국민학교로 집결했다. 당시 일부 직업소년들은 사이다 병에 휘발유를 적신 모래를 넣은 다음 형짚 심지를 집어넣어 수제 수류탄을 만들었다. 그리고 수제 수류탄을 힘껏 쥐고 잔걸음으로 무학초등학교 쪽으로 향했다. 이들은 경찰과 맞서 싸울 태세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도경 진압부대 2백여 명이 도착했다. 사기충천한 경찰은 공격태세로 전환했다. 그들은 바리케이드를 친 무학국민학교 정문 앞으로 다가가 총격을 가했다. 이에 맞선 시위대의 투석도 만만치 않았다. 시위대는 드림통을 굴리기도 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돌, 막대기, 쇧조각, 유리병 등 닥치는 대로 내던졌다. 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칼빈 총 1정을 탈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70여 명의 시위대는 경찰의 강력한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 뒷담을 넘어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경찰과 반공청년단은 이른바 ‘폭도’ 소탕을 위해 마산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학교 담을 넘어 추산공원의 산 정상 방향으로 도주한 시위대는 도중에 다른 시위 군중들과 합류하여 의신여자중학교 교정에 집결했다. 2백여 명이 이르는 시위대의 대부분은 청년, 학생, 직업소년들이었다. 이들은 자유당에 거액의 정치헌금을 헌납한 고려모직과 자유당 국회의원 이용범이 운영하는 대동공업사를 습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새벽이 되어 야심한 밤바람이 불어 오자 공포에 질려 있던 청년, 학생들이 쫓무니를 빼는 바람에 시위대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끝까지 남은 직업소년과 청년들도 결국 경찰에 발각되어 격투 끝에 체포되고 말았다.²⁸ 이렇듯 도시하층민은 밤시위 당시 끝까지 남아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 그리고 격렬한 밤시위는 4월 11일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2차 마산항쟁에서 재개되었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1차 마산항쟁 당시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체

가 발견되었다. 김주열의 시신이 안치된 도림마산병원에 저녁 6시가 넘어 3백여 명의 중고생들이 모여 시위를 시작했다. 도로변을 꼭 메운 수천 군중과 합류한 시위 행렬이 무학국민학교 앞을 지나 자산동 철교 밑에 이르렀을 때, 이미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인파가 거리에 넘치고 있었다. 시위대는 불이 켜진 연도의 건물을 향해 1차 항쟁 때와 마찬가지로 “불을 꺼라!”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로 말미암아 마산 시가는 암흑천지가 되어 버렸고, 교통도 완전 두절되었다. 성난 시위대는 서성동에 있는 서울신문 마산지국 간판을 떼어내고 건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즈음 시내 일원은 공권력이 먹혀들지 않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더욱이 2차 마산항쟁은 1차 항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으며, 도시하층민을 비롯한 시민의 호응과 열기 또한 훨씬 압도적이었다. 시위대는 경찰서를 완전히 포위하고 우렁찬 함성으로 기세를 올렸다. 그중 과격한 일부 청년들은 경찰서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곤봉과 막대기를 들고 유리창을 파괴하는가 하면 서류 봉치를 끄집어내 짓밟아버렸다. 또 다른 무리는 경찰서 마당에 대기 중이던 트럭에다 큰 돌을 던져 손상을 입혔다. 시위대는 그 밖에 여러 파출소를 타격하는 한편, 마산시청, 창원군청, 경찰서, 소방서, 자유당사, 서울신문 지국, 국민회, 형무소 등에도 돌 세례를 퍼붓고 건물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했다. 또 밤시위 과정에서 불빛을 내보내 시위대의 행동에 지장을 준 제일은행 마산지점, 마산일보사에도 투석 세례를 했다.²⁹

마산의 밤시위에서 주된 타격 대상은 앞서 언급한 대로 권력기관이나 권력과 밀착한 어용기관이었다. 이는 당시 밤시위를 주도한 도시하층민들이 이승만 정권, 특히 경찰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반면 격렬한 시위 과정에서 권력과 관련 없는 부유층에 대한 공격이나 약탈

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1·2차 마산항쟁 이후 약 20년이 지난 1979년에 역시 마산과 인근의 부산에서 발생한 부마항쟁의 양상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부마항쟁 당시에도 밤의 익명성을 이용한 도시하층민의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부마항쟁에 나선 마산 시민들 중에는 중국집 배달원, 술집 종업원, 구두닦이, 견습공, 노동자 등 하층민이 많았는데, 그들은 밤시위를 벌이며 주변의 집, 상점, 건물을 향해 “불꺼라!” 하고 외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곳으로 돌을 던졌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등화관계 대상이었다. 부마항쟁의 시위대는 이러한 밤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파괴 및 방화는 물론, 부유층에 대한 공격도 공공연하게 행했다. 부유층이 소유한 대형상가 건물을 공격했고, 도로변의 고급주택, 고층건물에 맹렬히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셨다. 자동차에 대한 등화관계 과정에서 버스나 택시에 대해서는 말로 불을 끌 것을 요구했지만, 자가용이나 관용차가 불을 켜올 때는 사정없이 헤드라이트를 박살내거나 차를 아예 빼앗아버렸다.³⁰ 즉 부마항쟁에서 도시하층민들은 계급적 적대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1979년과 달리 1960년 마산에서는 이러한 계급적 적대감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 단지 권력과 밀착한 기업 혹은 기업인에 대한 타격이나 타격 계획이 있었을 뿐이다.

1960년 마산항쟁, 특히 4월 11일부터 전개된 2차 마산항쟁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때부터 ‘이승만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1960년 3월 15일 4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중고등학생 시위에서 이승만 퇴진 구호는 나온 바 없었다. 물론 일부 학생이 이러한 구호를 외쳤을 수도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희박하다. 당시 주요 구호는 “학원의 자유를 달라”,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였고 “부정선거 배격하자”, “공명선거

보장하라” 등 부정선거에 직접 항의하는 구호도 있었다. 3·15부정선거와 1차 마산항쟁 이후에도 학생 시위에 등장한 구호와 요구사항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선거무효와 재선거를 촉구하고, 경찰의 유혈진압을 비난하며 그 책임을 묻는 구호가 새로 등장했을 뿐이다. 물론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인사들이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또는 이승만 정부의 퇴진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개인적 의견이었을 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4월 11일 2차 마산항쟁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이승만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처음으로 외쳤다. 이에 내무부는 4월 12일 검찰과 경찰이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라는 구호의 근본 의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때 ‘이승만 하야’ 구호가 시위대의 핵심적인 목표와 요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³¹ 그러나 도시하층민이 적극 가담한 시위에서 ‘이승만 하야’를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후 실제 역사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2) ‘피의 화요일’ 4·19

4월혁명 당시 도시하층민이 시위에 나선 곳은 마산만이 아니었다. 4월혁명의 클라이맥스인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서울, 광주, 부산에서도 도시하층민이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 이날 그들은 ‘낮’에도 자신의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고 권력과 치열하게 맞섰다. ‘밤’에는 시위가 더 격렬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그래서 이날은 ‘피의 화요일’이 되었다.

4월 19일 시위 도중 광주에서는 8명이 사망했는데, 시위대가 7명, 경찰이 1명이었다. 8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공원(노동자) 2명, 취업준비 중인 속성학원생 2명, 경찰관 1명, 무직 3명 등이었고, 학생은 단 1명도 없었다.

19일 광주의 오전 시위는 고등학생만의 시위였다. 그러나 오후 들어 시위대가 시내로 진출하면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하기 시작했다. 곧 시위대는 천 명이 넘는 규모로 불어났다. 시위대 중 일부가 충장로로 향하자 경찰이 제지했고, 이때부터 시위대는 경찰에 돌을 던지며 맞섰다. 오후 2시 10분경 충장파출소 유리창이 시위대의 투석으로 깨졌다. 이후 시위대는 파출소가 보이면 공격해서 유리창을 부수곤 했다. 시내 쪽 파출소(충장로, 개림동, 대인동, 학동 등)는 모두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경찰의 계속되는 최루탄 발사로 시위대의 대응은 더 격렬해졌다. 자유당사와 서울신문사 전남지사를 파괴한 시위대는 충장로를 타고 내려갔고, 여기서 금남로 3가의 시위대와 합류했다. 충장로, 금남로는 시위대로 가득 찼고, 시위는 완전히 시민투쟁 양상으로 바뀌었다.³²

밤이 되었을 때 금남로 1가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시위대는 충장로, 금남로 일원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다 점차 광주경찰서 쪽으로 다가갔다. 당시 시위대는 “폭력 경찰 때려죽여라. 민주 역적의 소굴 경찰서를 쳐부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주경찰서를 향해 행진했다. 시위대가 경찰서 주변에 모여들자, 19일 밤 9시 25분, 40명으로 구성된 경찰 돌격대는 시위대를 향해 돌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은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다. 실탄 사격이었다.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7명이 사망했다.³³

4월 19일 부산에서도 4월혁명 기간 중 가장 격렬한 항쟁이 전개되었다. 이날 부산 역시 광주와 마찬가지로 저항의 주체와 양상이 학생 시위에서 시민투쟁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학생 시위의 중심은 경남공고, 데레사여고, 부산상고를 비롯하여 그간의 학생 연합 시위를 주도해왔던 학교의 학생들로, 부산 지역에서 4월혁명 사상 최대의 연합 시위가 벌어진 셈이었다. 경찰

의 폭력 진압은 시위에 참가한 학생은 물론 연도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위대에 합류하여 경찰에 맞섰다. 덕분에 이날의 시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열이 더욱 확대되고, 시위의 양상 역시 적극적·공세적이 되었다. 오후 2시경 서면로터리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가 부산진경찰서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하자 경찰은 수류탄과 기관총을 난사하며 대응했다. 이에 격분한 시위 군중들은 경찰차와 소방차, 트럭에 불을 지르며 저항했다. 결국 버티지 못한 경찰이 경찰서를 비우고 퇴각하면서 경찰서는 시위대에 의해 점거되어 파괴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기와 총성으로 뒤덮인 서면 일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³⁴

4월 19일의 부산 시위가 시민투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내의 다양한 집단이 이 시위에 참여했다. 그 가운데 구두담이, 전차표 파는 사람, 음식점 종업원, ‘양아치’라 불리는 녀마주이, 옛장수 등 도시하층민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특히 구두담이, 녀마주이들은 인상적인 외형 때문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4월 19일 부산진경찰서 습격에도 적극 가담했다.³⁵

4월 19일 밤 서울에서도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게서 무기를 탈취하여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휩쓸다가 종로 3가와 서울운동장 앞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40여 대의 차량을 탈취하여 밤거리를 달리며 시위하던 시위대는 동대문, 청량리 주변의 파출소를 습격하여 모조리 불태우고 30여 명의 카빈총을 빼앗았다. 이들은 서울 동북부를 누비며 미아리를 거쳐 의정부 무기고를 찾아 창동까지 밀려갔다. 그곳에서 시위대는 창동지서 경찰들과 한참동안 총격전을 벌이다가 자정 무렵 계엄군과 경기도경이 협공할 기세를 보이자 안암동 고려대 뒷산으로 퇴각했다. 계엄군은 이들을 포위하여 고려대

안으로 몰아넣었다. 당시 고려대로 밀려들어간 시위대는 약 1,500명 정도였다. 계엄군은 무장한 시위대를 무리하게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고 대신 투항을 유도했다. 결국 서울시 계엄군 사령관 조재미 장군이 고려대 안으로 직접 들어가 시위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시위대는 무기를 버리고 자진해산하게 되었다. 반면 고려대에 들어갔던 시위대 중 약 200명의 어린 소년들은 철조망을 뚫고 안암동 쪽으로 도망쳐, 4월 20일 아침 6시 45분경부터 신설동로터리와 성북구청 사이에서 계엄군 지프의 유리창을 모조리 부수는 등 과격한 시위를 약 30분 동안 벌였다. 이들은 3대의 버스와 12대의 택시를 탈취해서 거리를 폭주하며 구호를 외치다가 아침 7시 20분경 출동한 성북서 기동대에 의해 해산되었다. 밤새 벌어진 과격 시위는 이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4월 21일까지도 고려대 뒷산과 우이동 뒷산에 시위대가 산적처럼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³⁶ 도시 무장봉기나 다름없는 이러한 과격한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 중에는 소수의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야간중고등학교나 공민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고학생을 비롯한 도시하층민이었다.³⁷

도시하층민들은 왜 시위에 나서게 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집된, 4월혁명 당시 부산에서 시위에 나섰던 한 도시하층민의 구술자료가 참고가 된다. 구술자는 한국전쟁으로 고아가 된 뒤 구두담이를 하며 구두담이 조직 내 중간보스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 이 시절 그의 신조는 “나보다 잘나는 놈들 등을 치고 불쌍한 놈들은 먹여 살린다”는 것이었다. 그랬던 그가 4월혁명 당시 부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구술자는 같은 하숙집에 있던 대학생들에게 처음으로 글을 배웠는데, 그들에게 왜 시위를 하는지 물어보니 그들은 “이승만 정권이 우리나라 다 말아먹었다”고 답했다. 이에 구술자는 “그럼 나도 앞장선다. 요것들이 정치 잘못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잃어버

렸다”고 생각하며 시위에 나섰다”고 한다.³⁸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권력에 대한 구술자의 분노와 더불어, 그에게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준 대학생들의 존재이다. 당시 구술자와 같은 고아, 구두땀이, 녀마주이들이 대학생과 접촉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1951년부터 수원에서는 한 대학생이 전재戰災고아 10여 명이 이끌고 함께 생활했는데, 곧 그 수가 60여 명으로 늘었다. 생활을 위해 열살 안팎의 고아들은 먼저 구두땀이를 배웠고 산에 가서 나물을 쫀다. 그리고 밥엔 글을 배웠다. 약 10년 동안 이들 고아 중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도 나왔다. 하지만 움막집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1959년경 이 움막집 고아들을 중심으로 ‘구국투사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21명의 단원들은 1960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혁명의 기치를 들고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의거를 일으키자고 밀약했다. 그러나 먼저 4월혁명이 일어났다. 이들도 4월혁명에 적극 참여하여 결국 2명이 사망했다.³⁹ 물론 ‘구국투사단’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1950년대 고아, 구두땀이, 녀마주이 등 도시하층민들은 나름의 조직 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사창가에서 ‘뽕푸보이’를 하던 청량리 일대의 소위 불량고아들을 모아 그들이 구두땀이나 공장노동자로 정상적인 지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홍국직업소년학교’ 같은 대학생 주도의 직업소년학교와,⁴⁰ 경제적 형편상 정상적인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 선택했고 또 4월혁명 당시 몇몇 희생자가 발생한 고등공민학교의 존재가 주목된다. 즉 4월혁명 당시 도시하층민의 시위는 사회경제적인 불만과 권력에 대한 분노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된 측면이 강했지만, 그 속에서 일정하게 ‘조직’과 ‘연대’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3) ‘승리의 화요일’ 4·26

1960년 4월 19일 절정에 달했던 대규모 시위는 이날 주요 도시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이 주둔하면서 일단 진정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의 각종 수습책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며칠간은 시위가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4월 25일 서울에서 교수단 시위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위가 재개되었다. 서울의 교수단 시위에서 교수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분명하게 요구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4월 11일 2차 마산항쟁 때부터 ‘이승만 하야’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고, 4월 19일의 대규모 시위 때도 시위대 일부가 이승만 퇴진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시위대의 핵심 목표가 이승만 정권 붕괴였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4월 19일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⁴¹ 이승만 정권은 여러 수습책을 제시했으나 정작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커녕 이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여론은 점차 정권 퇴진의 방향으로 모아져갔다.

4월 23일 인천, 24일 포항에서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라는 내용의 구호가 연이어 등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4일과 25일에 벌어진 마산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였다. 24일 마산의 할아버지들은 “책임지고 물러가라”, “가라치울 때는 왔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비록 주어가 빠져 있지만 사실상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마산의 할머니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죽은 학생 책임지고 리 대통령은 물러가라”라는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진주의 학생들도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⁴² 이러한 구호는 모두 4월 25일 오후에 시작된 서울의 교수단 시위보다 먼저 나온 것으로, 교수단의 ‘이승만 하야’ 요구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25일 교수단 시위 이후 전면화된 ‘이승만 하야’ 구호가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이승만 죽여라”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4월 26일 새벽 2시경 약 50명이 삽자루, 곡괭이, 도끼를 들고 서대문에서 종로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승만 죽여라”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⁴³ 이 구호를 누가 어떤 의도로 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4월 25일 본격적인 시위 재개 이후 도시하층민의 밤시위 역시 함께 재개되면서 정권 퇴진 분위기가 더욱 고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4월 26일 아침부터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4월 19일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모두가 이승만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이날 오전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을 발표했다. 이승만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국 곳곳에서 매우 폭력적인 시위가 계속되었다. 일례로 서울에서는 시위대가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이기봉, 최인규, 임철호, 장경근 등 자유당 고위인사의 자택을 공격했다. 수원에서는 시위대가 자유당 시당부, 경찰서, 소방서 등에 투석하고 역전 중동파출소를 대파했다.⁴⁴ 목포에서도 서울에서 시위 도중 사망한 고등학생의 시신이 도착한 것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대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목포경찰서, 역전 파출소, 자유당 목포시당과 위원장 자택 등을 파괴했다.⁴⁵ 김천에서는 밤 9시경 시위대가 경찰서는 물론 시내 4개 파출소와 세무서, 그리고 시의회회장 집을 파괴했고, 심지어 성주에서는 다음 날인 27일 오전 정체불명의 시위대가 초전지서를 습격하여 무기창고를 부수고 카빈총 7정과 실탄 60발, 전화기 1대를 탈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⁴⁶

부산의 경우 4월 26일 시위대 5만 명이 도청을 점령하고 자유당 지부 7개소, 경찰서 6개소, 파출소 30개소를 소각 또는 파괴했다.⁴⁷ 이날 부산의 시위 군중들은 경찰차를 빼앗아 몰고 사이렌을 울리며 시위했으며, 택시

및 버스, 트럭 등에도 분승하여 시가를 오고 갔다.⁴⁸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부산을 벗어나 인근의 마산으로 원정 시위를 떠났다. 수십 대의 차량을 몰고 마산으로 향한 천여 명의 원정시위대는 연도변의 5개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이 버리고 간 칼빈 총과 경찰복을 노획했다. 밤 8시 30분경 마산으로 들어온 원정 시위대는 마산 시민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무학국민학교에 집결했다. 경찰복을 입은 학생, 경찰 모자를 쓰고 칼빈 총을 거꾸로 멘 청년, 탄대를 두르고 소총을 든 소년들이 버스 지붕 위에 올라 앉아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원정 시위대가 마산의 파출소를 파괴하고 동양주점, 형무소, 은행 등을 파괴할 기세를 보이자, 마산 시민들은 자위태세를 갖추어 무학국민학교 출구를 봉쇄하고 더 이상의 파괴는 용납할 수 없음을 알렸다. 이에 원정 시위대의 기세는 한 풀 꺾였고, 대신 마산 시민들은 저녁밥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다.⁴⁹ 부산에서 온 원정 시위대에는 주먹을 쓰는 깡패, 건달, 양아치, 구두땀이, 행상인이 태반이었으며, 이밖에도 흥동가의 여인, 품팔이, 노동자가 더러 끼어 있었다고 한다.⁵⁰

원정 시위대는 마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4월 26일 서울에서도 원정 시위대가 인근의 인천, 수원, 의정부 등으로 진출했다. 특히 인천에는 약 2백 명의 원정 시위대가 트럭, 버스, 택시 등에 분승해 인천시청에 몰려 들었다. 이들 중 학생대표로 알려진 서울대 문리대 학생 3명은 시장비서를 통해 인천의 시위 상황을 들은 다음, 인천시장에게 시위대의 점심을 요청하여 식사를 했다. 이후 원정 시위대는 자신들이 몰고 온 경찰차를 선두로 인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오후 늦게 서울로 떠났다.⁵¹ 『조선일보』는 서울에서 온 원정 시위대가 수많은 인천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인천에서 발행된 『기호일보』의 기사 내용은 사뭇 다르다. 『기호일보』에 따르면 원정 시위대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표정은 “백안시에 가까운 무표

정”이었다. 오히려 이들이 시내 음식점에 난입하여 무전취식을 하자 많은 시민들이 격분했으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폭도화하는 데모대”로부터 구해야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기도 했다. 이들 원정 시위대의 대부분이 10대로 “얼핏 보아 그들은 학생 아닌 직업소년들이었다. 비록 대학생이 원정 시위대의 대표 역할을 했지만 사실 차량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강했다.⁵² 한마디로 마산과 인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정 시위대에는 학생도 있었지만 도시하층민이 다수였고 그들은 원정 간 도시에서 한편으로는 환영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4월 26일 가장 격렬하게 시위가 진행된 곳은 대전과 대구였다. 대전에서는 26일 낮까지 평화적으로 전개되었던 시위가 저녁이 되면서 격렬한 양상으로 바뀌었다. 학생과 시민들은 버스와 트럭을 타고 시내를 돌면서 시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유당 관련 사무실과 당 간부의 집을 공격했다. 시민들은 자유당 대전시 갑구 당사에 돌을 던지고 간판을 철거했으며, 사무실로 들어가 비품을 파괴하고 서류를 불태웠다. 이어 자유당 도당 사무실에도 진입하여 비품을 부수고 간판을 파괴했으며, 자유당 대전시당 간부의 집을 공격하여 불태웠다. 또한 정부와 자유당의 기관지로 비판받던 『서울신문』의 대전지사 사무실에 돌을 던지고 진입하여 사무 비품을 파괴했다.

밤이 깊어지자 시위대는 관공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대전소방서를 공격하고 소방차를 탈취하여 불태웠다. 횃불을 들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던 시위대는 대전경찰서에 횃불과 돌을 던졌고, 서대전경찰서와 시내 11개 파출소에도 돌을 던지고 기물을 파괴했다. 밤이 깊어지고 시위 양상이 격렬해지자 군과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해산을 거부하고 진압에 나선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며 대항했다. 결국 시위는 군인

들이 공포탄을 발사하며 진압에 나서면서 진정되었다.⁵³ 당시 언론은 26일 대전의 시위에 대해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데모는 질서정연하게 끝났으나 이날 밤 구두땀이 등 일부 불량청소년들은 트럭, 택시 등 차량을 빼앗아 가지고 거리를 휩쓸면서 대전경찰서 및 10개 파출소와 자유당 사무소 등을 파괴하였다”고 보도했다. 즉 파괴의 주체는 도시하층민이라는 거였다. 이들 중 약 2백 명이 군 당국에 체포되었으며 그중 67명은 훈방되었으나 나머지 133명은 ‘소요죄’ 또는 ‘방화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었다.⁵⁴

이승만의 하야에도 불구하고 도시하층민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자 다음 날인 4월 27일 대전 시내 17개 대학 및 중고등학교 학도호국단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도청에서 장시간에 걸쳐 학생의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전날 격렬하게 전개된 시위의 재발을 우려하면서 학생의 학원 복귀를 결의했다. 또한 북한의 남침 방지와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일체의 시위를 벌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학생들은 민주국가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명목 아래 ‘시국수습대전시학생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섯 개의 선무반을 조직하여 시내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시위를 자중해줄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벌였다.⁵⁵

대구의 상황도 비슷했다. 4월 26일 대구 시위는 점점 격화되었다. 오후 5시 30분경 일부 시위대는 자유당 경북도당에 몰려가 당내에 비치되어 있던 일체의 서류와 의자, 책상 등을 모조리 파괴하는 동시에, 일부 의자 등을 길 한가운데로 들고 나와 불태워버렸다. 대구시내 도처에서 시위 군중들이 방화한 화염이 밤하늘을 물들일 때, 대구 3개 경찰서 관내 파출소는 대부분 텅텅 비었고 그 속에 있던 책상, 의자, 각종 서류 등은 모조리 찢기고 불타버렸다. 전깃불까지 깜깜해진 파출소 역시 무장한 헌병 몇 명이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 남성로에 있는 『서울신문』 경북지사도 산산이 파괴되었다. 밤

9시 반경 대구경찰서 역전파출소에 몰려든 군중들은 파출소 안에 있는 의자, 책상 등 집기 전부를 파출소 앞에 끄집어내고 불태웠다. 밤 10시경 대구 시청 앞으로 몰려든 군중들은 시장관사에 들어가 가재 등을 전부 밖으로 들어낸 다음 역시 불을 질렀다.

대구 지역 언론들은 4월 26일 밤의 격렬한 시위를 “학생 아닌 소년들”이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영남일보』 1960년 4월 27일자에는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26일 밤의 대구시내는 때를 지은 청소년들에 의해 도심지의 대다수 파출소와 몇몇 인사 집의 서류, 집기, 창문, 가재도구 등이 모조리 길거리에 불태워지고, 손에 곤봉을 가진 17, 8세의 학생 아닌 소년들은 통행금지 시간이 훨씬 넘은 밤 1시까지 시가에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소방차를 꺼내어 달아나는 등 행동을 계속하여, 마침내는 경계 군인들의 비상 공포 발사 사태까지 야기하여, 그동안 질서를 유지해오던 대구시내가 하룻밤 사이에 공포에 감싸인 거리로 변해버렸다”는 기사가 실렸다. 『대구일보』 1960년 4월 27일자도 “26일 하오 비교적 질서를 지키려는 일부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의 테도대가 대구시내 몇 군데를 지나간 후 밤 7시경부터 나타난 10세 전후의 꼬마 소년들과, 15, 6세의 소년들이 뒤섞인 군중들은 27일 새벽 3시경까지 자유당과 관련이 있는 인사 집과 건물을 살살이 찾아다니면서 방화, 파괴, 약탈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⁵⁶

4월 26일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자 4월 27일부터 대구 시내 4개 대학의 학생들은 부서진 공공기관을 청소, 정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자발적으로 나섰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요청에 의해 시내 경비에도 참여했다. 거리를 청소하고, 경찰의 무기력으로 기능을 상실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치안확보와 선무작업에 앞장섰다.⁵⁷ 대구도 대전과 마찬가지로 4월 26일 도시하층민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하자, ‘피의 화요일’로 시작하여 ‘승리의

화요일'로 종지부를 찍은 한 주일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학생이 나섰던 것이다.

4. 고학생과 도시하층민은 어떻게 잊혀졌는가?

대전과 대구에서 대학생이 벌인 수습 활동은 이승만 하야 직후 서울에서 대학생이 보인 모습과 그대로 일치했다. 4월 26일 오전 시위를 벌이기 위해 한양대에 모였던 27개 대학 대표들은 이승만의 하야 소식을 듣고 질서 확립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민권은 승리했다”, “질서를 지킵시다” 등의 플래카드를 만들어 앞세우고 행진하면서 군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했다.⁵⁸ 종로에서 시위 군중 속에 끼어 있던 대학생 약 2백 명도 급하게 헬서로 ‘수습’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고 건설하자”고 외치며 거리를 누볐다.⁵⁹ 이승만 하야 직후 대학생은 왜 곧바로 질서 확립을 위한 수습 활동에 나섰을까? 많은 희생은 치르며 독재 정권을 무너트린 대학생들은 이 항쟁을 ‘혁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혁명의 주체임을 자임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 그들이 곧바로 ‘질서회복운동’에 들어간 것도 스스로를 혁명의 주체로 인식한 결과였다.

4월 26일 대학생은 곳곳에서 성난 시위 군중들을 진정시켜 해산시켰고, ‘학생 소방대’를 결성하여 시위대의 공격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동대문경찰서의 소화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이승만 하야 직후 경찰이 지취를 감춤으로써 야기된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엄사령부와 협조하여 대학별로 ‘질서유지반’을 편성, 각 경찰서에 배치했다. 연세대 학생들은 서대문경찰서에서 90명씩 2개조로 나누어 질서유지 청소 및 이기봉 집 주위 치안확보를

담당했으며, 성균관대 학생들은 시경찰에 본부를 두고 외무반, 내무반, 선무반으로 나누어 각각 교통정리, 타 대학 상황 청취, 호소문 살포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 밖에 서울대는 남대문서, 고려대는 중부서, 건국대는 성북서, 중앙대는 영등포서, 한양대는 성동서, 경희대는 마포서에 본부를 두고 27일 오후 7시까지 비슷한 활동을 전개했다. 곳곳에서 대학생들은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했고, “구급환자에게 피를 제공하실 분은 대학병원으로 오시오” 하는 벽보를 보고 아낌없이 헌혈에 나섰다. 이승만 하야 직후 대학생이 전개한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불의에 항거하는 것 못지않게 대학생의 ‘순수성’을 드러낸 것으로 사회에 큰 인상을 남겼다.⁶⁰

반면 대학생은 도시하층민의 과격한 행동을 ‘파괴’와 ‘혼란’으로 인식했다. 4월혁명 당시 도시하층민이 과격한 시위를 벌였던 것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는 물론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다. 대학생도 이를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그들은 장차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로서 공동체의 질서 확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기에는 1950년대 학도호국단을 통한 국가의 학원 통제 속에서 대학생들이 성장하며 체화한 질서에 대한 규율과 더불어, 이승만 정권이 1959년 조봉암을 ‘법살法殺’하고 1960년 4월혁명 내내 각종 시위를 공산주의자의 사주로 몰아붙이거나 북한의 침략 기회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⁶¹ 결국 대학생은 이승만 하야 이후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방식으로 자신을 도시하층민과 구별했다.

지식인과 언론은 도시하층민의 과격한 시위를 비난하고 학생의 질서정연한 시위 모습을 칭송하면서 이러한 구별을 더욱 분명히 했다. 1960년 4월 11일부터 시작된 제2차 마산항쟁 당시 지식층 시민들은 시위 주동자를 연행하기 시작한 사직당국에 낮에 이루어진 학생 시위와 밤에 있었던 일반

시위를 구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학생들이 주동이 된 낮시위는 목적이 순수한 것이었으나 일부 청년층이 선도한 밤시위는 폭행과 파괴를 수반했으므로, 주간과 야간에 이루어졌던 시위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⁶² 언론도 4월혁명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데모가 질서정연”했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했다. 학생 스스로도 시위 와중에 ‘질서’를 의식했다는 진술을 과도할 정도로 자주 했다. 지식인과 언론은 유독 강조된 학생의 질서의식을 상찬할 만한 청년세대의 민주주의적인 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승만 하야 직후 대학생이 치안 유지와 거리 청소에 나서자 이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학생들의 새로운 건설 데모”라고 높이 평가했다.⁶³ 일례로 4월 26일 서울에서 시위대가 이기봉의 집을 습격했을 때 “일부 어린 학생들이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대학생들은 그것을 제지했다. 그 까닭은 이기봉 집이 타면 그 이웃집에 불길이 옮겨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 광경을 본 한 언론사 기자는 “대학생의 지성이 없었던들 이번 혁명의 사태는 무지한 파괴로 끝났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⁶⁴

물론 간간히 도시하층민의 과격한 행동을 인정해주는 지식인과 언론도 있었다. 1960년 5월 14일자 『국제신보』에는 『‘양아치’도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다』는 칼럼이 실렸다. 이 칼럼은 ‘양아치’를 “정치 없이 부랑하는 소년, 구두땀이, 신문 파는 아이들의 불량성에 치중한 호칭”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4월혁명 당시 “스크럼을 짜고 거리를 행진하고 트럭이며 지프차며 징발해선 타이아가 터지도록 가득 타고 질주하며 기세를 올렸”으며 “관서나 권력자의 집을 부순 선봉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양아치들에겐 공공연하게 비난의 말을 토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의 동기와 행동은 처음부터 악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행위는 훌륭했다. 그러나 양아치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단 한 사람도 체포 구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파괴행동을 한 양아치들은 철저히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라는 것이다.” 반면 이 칼럼은 “학생들의 의욕을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고 그러면서 테모의 범죄 면을 그같이 담당해줌으로써 양아치는 학생의 순결을 법적으로 보장해준 수단으로 자기희생을 감행”했다고 새로운 해석을 가했다. 그러면서 “금번^{今般}의 테모가 학생들만으로서 이처럼 거창한 세력으로 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 싶다. 커다란 흐름이기는 했어도 완고한 절벽을 일조一朝에 무너뜨릴 수 있게까지 결정적 위력을 가진 힘으로 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 싶다. 학생들의 청류^{淸流}에 양아치의 분별없는 탁류^{濁流}가 섞임으로써 노도^{怒濤}가 되고 격류^{激流}가 되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양아치에게도 몇 분인가의 논공이 있어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⁶⁵ 또한 『동아일보』 1960년 9월 3일자 조간도 구두담이 소년들의 비참한 삶을 설명하면서 “4·19가 터지자 누구보다도 그들이 용감하였다. 다방골목에서 빌딩 그늘 밑에서 벌떼 같이 쏟아져 나와 혁명전선 선봉에 섰다. 저녁거리고 뭐고 다 집어 치우고 맨주먹으로 총부리와 맞붙어 싸웠다. 그리하여 피를 쏟고 쓰러졌다. 그 생명 무려 수백”이라고 4월혁명 당시 구두담이의 활약을 인정해줬다.⁶⁶

그러나 이처럼 도시하층민을 4월혁명의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었다. 오히려 4월 19일 이후 주요 도시에서 치안을 담당한 군 수뇌부는 4월혁명에 참여하여 과격한 시위를 벌인 도시하층민을 일반 학생과 구별되는 ‘깡패’와 ‘불량배’로 간단하게 낙인찍어버렸다.⁶⁷ 그들은 혁명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4월혁명 당시 과격한 시위에는 도시하층민뿐만 아니라 어린 고학생은 물론 일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도 종종 가담했지만, 사회의 전반적 인식은 질서 있고 순수한 학생과 난동과 파괴를 일삼는 위험한 불량배를 끊임없이 구별하면서 전자를 우대하고 후자를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스스

로를 내세우기 어려웠던 도시하층민은 혁명의 주인공 자리를 박탈당했다. 여기에 어린 고학생을 비롯한 중고등학생마저 수습 과정에서 대학생의 뒤로 밀리고, 결국 모두 학교로 복귀하면서 대학생만 혁명의 유일한 주체로 남게 되었다.⁶⁸

4월혁명 이후 도시하층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승만 정권 붕괴 후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해 1960년 7·29총선이 실시되었을 때 이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그가 “4월혁명은 구두담이 소년들이 선발先發이 되었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문제가 되자 이를 극구 부인하며 “4·19혁명은 학생들이 주동이 되었으며 일반 국민은 물론 심지어 담배 파는 고학생 및 구두담이 소년들까지 이에 가담하였다”고 발언한 것이 와전되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⁶⁹ 도시하층민이 4월혁명을 주도했다는 얘기는 이미 4월혁명 직후부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었던 것이다.

장면 정권 출범 직후 입법의 미비로 이승만 정권하에서 부정선거 및 경찰 발포는 물론 온갖 비리와 부패에 연루된 고위층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리자, 1960년 10월 이를 규탄하기 위해 ‘전국학생민주수호투쟁위원회’, ‘전국고학생협회’, ‘전국고학생자치위원회’ 등 5개 학생단체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가졌다.⁷⁰ 그런데 이 규탄 집회 과정에서 ‘4월혁명부상동지회’ 회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지금도 4월혁명 이후 소위 ‘데모 만능’의 사회 무질서와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구속당한 11명을 보면 고등학생 2명, 상업 1명, 무직 2명, 나머지는 시계수리공, 운전수, 점원, 뺨 종업원, 구두담이, 행상 등이었다. 나이도 대부분 10대 후반에 불과했다.⁷¹ 4월혁명처럼 이때 역시 도시하층민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대학생들도 일부 이날 규탄 시위에 참여했지만 구속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국회 난입 사건 직후인 1960년 11월 서울 지검 강력부는 동계 방범대책으로 구두땀이, 녀머주이, 실직아동, 결식아동의 명단을 작성하여 등록시켜 놓고 이들 ‘우범소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⁷² 도시하층민에 대한 이와 같은 감시와 통제는 1961년 5·16쿠데타 직후 부산에서 구두땀이에 대한 등록과 등록표 착용을 실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이루어졌다.⁷³

대학생들 역시 4월혁명 이후 도시하층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계속 유지하며 자신들만이 혁명의 주체라는 인식을 강화했다. 1962년 4월혁명 2주년을 기념하여 한 잡지에서 진행한 대학생 좌담회에서,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도시하층민들을 비난하며 오직 학생들만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4·19 전에 민생고의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 하류층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4·19를 원망하는 실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패한 법망을 이용하여 오히려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대개가 쓰고 버린 외제 분갑이나 크림통을 수집해서 가짜 외국산 화장품 행상을 하면서 살던 토막촌 사람들로서 오히려 4·19를 저주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부득이 주체 세력이 되었다고 봅니다.”⁷⁴ 물론 이는 극단적인 견해도 볼 수 있지만, 대학생 대부분에게 도시하층민은 불쌍하지만 무지하고 불량하고 위험한 그래서 ‘계몽’해야 하는 대상에 불과했다.

대학생도 4월 19일의 대규모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4월혁명은 그들만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학생들은 4월혁명의 주체 자리를 독점해버렸다. 대학생이 어린 고학생과 도시하층민을 배제하고 4월혁명의 유일한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그들이 당시 지도자의 위상을 가진 ‘엘리트’였다는 데 있었다. 장차 지도자가 될, 그러면서도 기성세대와 달리 ‘순수’한 엘리트였던 대학생은 4월혁명의 수습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혁명주체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반면 대학생보다 훨씬 일찍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서서 4월혁명을 고양시켰음에도 그저 어린 십대로 취급당한 고학생을 비롯한 고등학생과, 가장 용감하게 싸웠지만 행동 이외에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언어’를 갖지 못했던 직업소년 등 도시하층민은 혁명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그리고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4월혁명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승만 정권이 붕괴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어린 고학생과 도시하층민의 급진적인 시위 형태는 결국 시위대와 독재 정권 사이의 대립을 화해 불가능한 적대적 대립으로 만들었다. 학생 일반의 설득력 있는 호소력이 결합된 조직적 시위와, 이들이 만들어낸 시위 공간에 적극 참여한 어린 고학생과 도시하층민의 자발적이고 급진적인 시위는 서로 불과 기름의 관계처럼 작용하면서 시위를 혁명의 성격으로 발전시켰다.⁷⁵ 4월혁명을 한국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4월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진 어린 고학생과 도시하층민에 대한 역사적 복권은 4월혁명사는 물론 한국 민주화운동사 전반에서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도 그만큼 더 시야가 넓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㉞

오제연

현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최근의 관심은 1950~70년대 한국의 대학사, 대학문화사, 학생운동사이다. 대표 논저로 「전인적 지도자 양성에서 고급 기술인력 양성으로—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대학의 위상 변화」와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등이 있다.

- 01 김성환, 「4·19의 민중운동사적 접근」, 1980. 이 글은 1980년 4월 18일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심포지움 ‘4·19’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김성환은 1984년 이 글을 수정 보완하여 「4·19혁명의 구조와 종합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거름)라는 책 속에 다시 수록하였다. 여기서는 1984년에 수정 보완된 글을 통해 김성환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 02 김성환, 「4·19혁명의 구조와 종합적 평가」, 『1960년대』, 거름, 1984, 45쪽.
- 03 김성환, 위 논문, 50쪽.
- 04 한상진, 「4·19혁명의 사회학적 분석」, 『계간사상』 봄호, 1990; 정용욱, 「이승만 정부의 붕괴(3. 15~4. 26)」,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4: 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사회와 이승만 정부의 붕괴』, 오름, 1998; 이영환, 「해방 후 도시빈민과 4·19」, 『역사비평』 46호, 1999.
- 05 이승원, 「‘하위주체’와 4월혁명」, 『지역과 전망』 20호, 2009; 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김미란, 「‘젊은 사자들’의 혁명과 증발되어버린 ‘그녀들」, 『여성문학연구』 23호, 2010; 권보드래, 「4·19는 왜 기적이 되지 못했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오제연,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의 ‘후진성’ 극복 지향과 동요」,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선인, 2010;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역사문제연구』 25호, 2011.
- 06 정근식·권형택 편,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2010.
- 07 허중, 「대전 충남 지역 4월혁명의 발발」, 『4월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선인, 2010, 105쪽.
- 08 『동아일보』 1960. 3. 15, 석간 3면.
- 09 오유석, 「서울에서의 4월혁명」, 『4월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선인, 2010, 191~192쪽.
- 10 『동아일보』 1960. 3. 15, 석간 3면.
- 11 홍영유, 『4월혁명통사 6』, 천지창조, 2010, 320쪽.
- 12 16개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다. 강문, 계성, 균명, 대광, 대동상업, 덕성, 덕수, 동북, 동성, 성동공고, 중동, 중앙, 풍문, 한양, 한영, 휘문.
- 13 홍영유, 앞의 책, 29~43쪽.
- 14 『동아일보』 1960. 4. 24, 2면; 『경향신문』 1960. 11. 13, 조간 3면.
- 15 『경향신문』 1960. 11. 20, 석간 3면.
- 16 『동아일보』 1960. 4. 10, 조간 3면.
- 17 오유석, 앞의 글, 187쪽.
- 18 김성식, 「학생과 자유민권운동」, 『사상계』 6월호, 1960, 70쪽. 물론 4월혁명이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학생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한다. 4월혁명 1년 뒤에 나온 글에서 김성태는 조사 결과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반드시 스스로를 중류 이하로 보지만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4월혁명에는 상류나 중류, 그리고 하류 출신 학생들이 다 같이 시위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성태 역시 4월

- 19일 대규모 시위 전까지 잇달아 일어난 고등학교 시위에는 “확실히” 상류층 자녀가 많다는 학교보다 중류 이하가 많다고 보는 학교들이 많이 나섰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성태, 『사월 십구일의 심리학』, 『사상계』 4월호, 1961, 83쪽.
- 19 안동립, 「두 소년 돌격대원」, 『세계』 6월호, 1960, 157~159쪽.
- 20 중앙학도호국단, 『학도호국단10년지』 중앙학도호국단, 1959, 276~277쪽.
- 21 오제연,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38쪽.
- 22 한태연, 「전제군주의 몰락—사월혁명의 역사적 의의」, 『세계』 6월호, 1960, 40쪽.
- 23 「(좌담회) 외인 교수·신부가 본 사월혁명」, 『세계』 6월호, 1960, 129쪽.
- 24 김성태, 「사월 십구일의 심리학」, 『사상계』 4월호, 1961, 82쪽.
- 25 홍영유, 『4월혁명통사 1』, 천지창조, 2010, 62~63쪽.
- 26 위의 책, 72~73쪽.
- 27 김동춘, 「1971년 8·10광주대단지 주민항거의 배경과 성격」, 『공간과 사회』 21집 4호, 2011, 26쪽.
- 28 홍영유, 『4월혁명통사 1』, 천지창조, 2010, 72~77쪽.
- 29 위의 책, 102~103쪽.
- 30 김원, 「박정희 시기 도시하층민—부마항쟁을 중심으로」,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2006, 313~317쪽.
- 31 홍석률, 「4월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 과정」, 『정의와 행동 그리고 4월혁명의 기억』, 선인, 2012, 118~124쪽.
- 32 오승용, 「광주전남의 4월혁명」,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2010, 330~331쪽.
- 33 위의 글, 332쪽.
- 34 김선미, 「부산의 4월혁명」,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2010, 393쪽.
- 35 위의 글, 396쪽.
- 36 강인섭, 「4월혁명 후기」, 『신동아』 4월호, 1965, 87~89쪽.
- 37 오제연, 앞의 글, 86쪽.
- 38 김아람, 「1960년대 고아(부랑아)의 개척단 활동과 경험」, 『2013 한국구술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3, 4쪽.
- 39 『경향신문』 1960. 10. 2, 석간 3면.
- 40 『동아일보』 1960. 11. 21, 3면.
- 41 홍석률, 앞의 글, 151쪽.
- 42 위의 글, 134~135쪽.
- 43 「(좌담) 주도세력없는 혁명은 정변에 불과—4·19 2주년을 회고하며」, 『사상계』 4월호, 1962, 157쪽.
- 44 『동아일보』 1960. 4. 27, 석간 3면.

- 45 『동아일보』 1960. 4. 27, 석간 4면.
- 46 『조선일보』 1960. 4. 28, 조간 4면.
- 47 학민사 편집실 편, 『4·19의 민중사』, 학민사, 1984, 38쪽.
- 48 『부산일보』 1960. 4. 27, 조간 3면.
- 49 이은진, 『3·15 마산의거의 지역적 기원과 전개』, 『4월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선인, 2010, 174쪽.
- 50 3·15의거 기념사업회, 『3·15의거사』, 3·15의거기념사업회, 2004, 425쪽.
- 51 『조선일보』 1960. 4. 27, 조간 2면.
- 52 『기호일보』 1960. 4. 27, 1면.
- 53 허중, 앞의 글, 110~111쪽.
- 54 『동아일보』 1960. 4. 28, 조간 3면.
- 55 허중, 앞의 글, 110~111쪽.
- 56 김태일, 『대구의 2·28과 4·19혁명』, 『4월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선인, 2010, 61쪽.
- 57 위의 글, 62쪽.
- 58 오유석, 앞의 글, 209~210쪽.
- 59 『조선일보』 1960. 4. 26, 석간 3면.
- 60 오병헌·고영복·이영덕, 『학생문제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0, 158~159쪽.
- 61 허은, 『4·18 고대생 시위 주체의 정체성과 사회운동 전개』, 『정의와 행동 그리고 4월혁명의 기억』, 선인, 2012, 74쪽.
- 62 안동일·홍기범, 『기적과 환상』, 영신문화사, 1960, 188~189쪽.
- 63 김미란, 『‘청년 세대’의 4월혁명과 저항 의례의 문화정치학』, 『사이間SAI』 9호, 2010, 31~32쪽.
- 64 이효식(동아일보 기자), 『4·19에서 4·26까지의 서울—일선 취재기자의 수기』, 『민주혁명의 발자취』, 정음사, 1960, 264쪽.
- 65 『국제신보』 1960. 5. 14(홍영유, 『4월혁명통사 7』, 천지창조, 2010, 11~13쪽에 수록).
- 66 『동아일보』 1960. 9. 3, 조간 3면.
- 67 『동아일보』 1960. 4. 27, 석간 3면.
- 68 협심회 주도 학생의 회고에 따르면, 4월혁명 직후 조직된 ‘4·19수습대책위원회’에서 대학생들이 전부 분과위원장을 맡고 자신들은 그 밑에서 간사를 맡았다고 한다. 홍영유, 『4월혁명통사 6』, 천지창조, 2010, 327쪽.
- 69 『경향신문』 1960. 7. 23, 조간 1면.
- 70 『동아일보』 1960. 10. 11, 석간 3면.
- 71 『경향신문』 1960. 10. 12, 석간 3면; 『동아일보』 1960. 10. 13, 석간 3면.
- 72 『동아일보』 1960. 11. 6, 석간 1면.
- 73 『경향신문』 1961. 10. 11, 석간 3면.

74 「(좌담) 그날의 합성을 회고한다」, 『신사조』 4월호, 1962, 222쪽.

75 이승원, 앞의 글, 201쪽.

■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日本の戦後平和主義—源流と展開,そして現在
(pp. 94-134)

남기정 南基正

平和主義は戦後日本を理解するキーワードの一つであった。しかし今、日本で、平和は陳腐と固陋の代名詞となっている。安倍政権の登場以来には、「戦後平和主義」の危機の兆候が社会のあらゆる部門で見え始めている。中でももっとも憂慮すべきは、「積極的平和主義」という名の非平和・安全保障政策が平和主義の保護色を帯びて登場している点である。「先制攻撃を通じた平和」と解釈できる安全保障政策が「平和主義」の名で公然と流布している現実を前に、本研究では、日本の戦後平和主義の源流と展開を辿りながら、そうした現実への歴史的解明を試みる。

分析の結論を要約すると次のようである。第一に、日本の戦後平和主義は反軍、反戦、反核を内容とするものであるが、いずれも敗戦の経験と不可分の関係を持ちながら形成、発展してきた。そのような源流から生まれた平和主義は憲法第九条の影響のもとで、絶対平和主義の形と内容を獲得するようになった。第二に、朝鮮戦争の影響のもとで、日本の絶対平和主義は、一方では政府の「現実主義的憲法平和主義」へと下降し、もう一方では、これに対抗する「ユートピア的絶対平和主義」への上昇し、分化した。以後、ベトナム戦争の影響のもとで、日本の平和主義は、一方では「国家」を否定し、これを超越する個人原理として純化し、もう一方では教養の権威を否定し、これを拒否する平等原理として純化する傾向を見せるようになった。第三に、日本の国民は、朝鮮戦争やベトナム戦争など「戦後の戦争」に日本が巻き込まれている状況にも関わらず、憲法改正を選択せず、政府が採択した「現実主義的憲法平和主義」の政策を支持し、その現状維持を選択した。その基調は現在も維持されているように見える。

日本の平和主義へ向けられた韓国の視線は、保守側からのそれは「怨望」に近いものであり、革新・進歩側からのそれは「失望」に近いものであった。その差は、日本の外部の非平和構造によって日本の平和主義が成立していたという逆接からくるものであった。従って、日本の平和主義再生のためには、日本の平和と東アジアの非平和が対立しつつ共存する逆説の構造が除去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の実践として、本研究では、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の時計の針あわせを提案する。

주제어 전후 일본(戦後日本), 평화주의(平和主義), 적극적 평화주의(積極的平和主義), 한국전쟁(朝鮮戦争), 베트남전쟁(ベトナム戦争).

투고 140115 / 심사완료 140205 / 게재결정 140207

■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고학생과 도시하층민

Forgotten People from the Memory of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Korea:
Self-Supporting Students and Urban Working Class

(pp. 136-172)

오제연 Oh, Je Yeon

It has been almost forgotten that at the time of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in Korea, high school students, rather than university students, particularly evening class students, were the initiators of the movement that brought down a corrupt government. This was not their first involvement in political action; they had a long history of anti government corruption campaigns since 1950s based on the Student National Defense Corp network, Hakdohogukdan, that had first been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he day before the general election, and after it was discovered that the election campaign and results had been fraudulent, large scale rallies began in Masan, Gyeongsang Province. Some became violent, particularly during the night. This protest spread to other large cities in Korea, and eventually led to the end of the Rhee Syngman government. However, as some students from the leading universities took over the role of spokesmen for the people in order to reestablish social order, they identified the activities and involvement of the group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urban working class, some of whom were involved in violent demonstration, as negative elements, alienated them from the success of toppling the government.

주제어 4월혁명(the April Revolution), 고학생(self-supporting students), 도시하층민(urban working class), 대학생(university students), 밤시위(nighttime demonstrations).

투고 140109 / 심사완료 140127 / 게재결정 140203

■ 그 많던 ‘외치는 돌맹이’들은 어디로 갔을까—1980~90년대 노동자문학회와 노동자 문학

Where Have All the “Shouting Stones” Gone?: A History of Korean Worker’ s Literature and their Literary Clubs between the 1980s and 1990s, Korea

(pp. 173~205)

천정환 Cheon, Junghwan

In the 1970s and 1980s, the literature of the working class and their literary clubs wer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llectual activities of working class people. They contributed to improving their reading and writing skills, and they formed their own ‘intelligent gatherings’ that was not only significant to them but also to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ut these literary aspects disappeared in the 1990s as suddenly as they had quickly developed. The rise and decay of working class literature was a radical phenomenon that occurred in a peculiar historical context. In large extent it influenc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culture, and labor. In the 1990s, the people’s literature and its theoretic basis vanished as society became more democratic even though it had suffered censorship and suppression during Park’s dictatorship. It is time to restore the discourses of working class literature and its literary clubs.